

전국체전 경제효과 얼마?

익산시 경제파급 1345억원·고용유발 1324명 예상

익산시가 2018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개최로 1,34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324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된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시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8년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주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 효과분석 연구용역에서 생산유발액 9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381억원, 고용유발인원 1,324명으로 익산시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건설효과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경기장개수에 369억원을 투입해 생산유발액 501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78억원, 고용유발 366명의 효과가 예상된다.

관광객지출 효과는 2개 전국대회로 선수단 및 임원, 선수단 가족 및 관광객 5만4,885명이 숙박을 하며 345억원 지출이 예상된다.

전국체전 개·폐회식의 경우 전국적으로 생방송돼 익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어 약역원정도 광고 효과가 있으며, 체육시설 인프라가 확충되고 시민공통체 의식 강화 등 정성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전국체전을 더욱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등의 지역관광 상품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회 기간 동안 한시적 시내버스 요금 감면 및 지원, 교통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회 이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체육행사 개최 도시로 위상을 강화하고, 주변도시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 체육시설을 익산시에 집중관리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공기업을 설립해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2018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투자와 소비지출, 생산증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익산시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전국체육대회는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익산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이 개최되고 경기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분산돼 치러진다.

/익산=장영원 기자

하림 '궁중식 찜닭'·'춘천식 닭갈비' 출시

모든 재료 한 팩에 담아 간편·근사한 요리 완성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의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자연실록'이 100% 국내산 닭고기와 소스, 손질된 채소까지 모두 한 팩에 담은 '궁중식 찜닭'과 '춘천식 닭갈비'를 오는 24일부터 롯데마트에서 단독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하림이 엄선한 100% 국내산 닭고기와 소스에 신선한 채소까지 손질해 진공 포장한 것이 특징이다. 하림 자연실록 '궁중식 찜닭'은 국내산 닭고기와 간장소스에, 당면, 감자, 양파, 당근, 대파까지 필요한 분량이 손질되어 있어 간단하게 썰고 볶기만 하면 근사한 요리가 완성된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는 남녀



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다. 하림 자연실록 '춘천식 닭갈비'는 국내산 닭고기와 매콤달콤한 소스에 양배추, 당근, 대파를 함께

담아 재료를 일일이 따로 구입해 손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였다. 볶음밥용 소스까지 들어 있어 집에서 간편하게 닭갈비와 볶음밥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다.

(주)하림 마케팅팀 정중선 차장은 "번거로운 재료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남은 식재료 걱정도 필요 없도록 모든 재료를 손질해 한 팩에 담았다"며 "하림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레시피를 하림이 엄선한 재료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맛과 영양을 중시하는 주부들은 물론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고 싶어하는 1~2인 가구도 선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림 자연실록 '궁중식 찜닭'과 '춘천식 닭갈비'는 24일부터 롯데마트 매장 및 롯데마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여름방학 어린이 건강교실 인기리 종료

군산시보건소 4주간 운영 근육량·유연성 등 증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긍정'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가운데 사진은 키 쑹쑹 농구교실.

군산시보건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3일까지 4주간 운영한 어린이 비만예방 프로그램 '내 몸애(愛) 건강 더하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23일 프로그램을 이수한 30명의 어린이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보건소에서는 신체활동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 이하 학생(BMI 표준이상, 이하 학생) 30명을 선발하여 4주간 12회에 걸쳐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 어린이의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 이번 프로젝트는 사전에 진행된 기초체력검사, 체성분검사 등을 통해 해당 어린이에게 ▲키 쑹쑹 농구교실 ▲월명공원 걷기 ▲뭉치 탈출 방송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건강 및 생활 습관을 교육하고자 건강행태 개선, 부모와 함께하는 조리실습도 함께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에 따르면 참가한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이 평균 1.5% 증가하고 대부분 어린이들에게서 악력 및 유연성 증가 등의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으며 프로그

램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아이 어머니는 "프로그램은 끝났지만 아이가 운동하는 것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뜻 깊은 여름방학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군산=장영원 기자

어르신 교육열 달군다

군산적십자평생대학 개강

군산적십자 평생대학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넓혀 주기 위해 최용희 학장은 23일 한원컨벤션 (구) 궁전웨딩홀 3층 연회장에서 2017년 2학기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창범 이사장, 최용희 학장, 고병수 부이사장, 전 여성협의회장 지구협의회 회장 및 50여명의 평생대학 이사를 비롯하여 300여명의 지역 평생대학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개강식을 열었다.

한창범 이사장은 "군산적십자 평생대학을 통해 학생(어르신)들의 행복하

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와 함께 건강하시라며 좋은 덕담을 내렸다.

이어 최용희 학장은 평생대학을 통해 평생교육, 평생건강, 평생보람으로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는 학교 슬로건으로 강의와 함께 신입생들과 함께 각종 동아리 활동을 선보였다.

/군산=김미연 기자

노인 자살원인 2위 '음독자살' 막는다

군산시,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신북 마을회관서 현판식 개최

군산시보건소는 농촌지역 음독자살 예방을 위한 2017년 농약안전보관함 대표마을 현판식을 23일 대야면 신북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과 한국자살예방협회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고위험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농약안전보관함과 폐농약수거함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군산시 노인인구 자살원인 중 2위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건소에서는 2017년 보관함 보급 사업에 선정된 대야면 신북마을과 하광마을, 성산면 신곡마을, 옥구읍 신기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설치작업으로 생명사랑농약마을 현판식 실시, 마을 대표 생명사랑 지킴이 위촉 등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마을에 대한 우울검사와 정신건강 프로그램,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현태 보건소장은 "이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뿐만 아니라 가구별 1:1 상담 등 군산시의 노인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장영원 기자

"청렴도 향상 강도 높은 혁신" 정현을 익산시장, 실천 당부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올 초부터 6개월 넘게 진행된 석산관련 수사로 공직분위기가 침체돼 있었으나 최근 정현을 시장(사진)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익산시가 흐트러진 조직을 다잡고 청렴조직으로 쇠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운영 현안보고회에서 정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에게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상급자의 솔선수범과 실천의지를 강조하며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전체 구성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특히 "진절할 마음과 무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청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녹아들게 될 것이다"며 시민들에 대한 친절행정과 봉사심을 강조했다.

또한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인 동시에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청렴을 지어발전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전 직원이 실천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 미륵사지 전시대비 위기대응 훈련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지훈련)과 연계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서 10개 관계기관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세계유산 미륵사지 피폭에 따른 유적보호·인명구조·화재대응 훈련'을 주제로 익산시,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문화체육관광부(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경찰서, 군부대, 익산소방서, 익산보건소, 한전익산지사, KT익산지사 등이 합동

으로 참여한 실제훈련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보수현장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적이 침투한 것을 가정한 상황 속에서 군부대가 적을 퇴치하고, 소방관과 자위소방대가 화재진압과 환자 이송을, 경찰이 국가무형문화재인 석탑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담했다.

정현을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에서 익산시와 관계 기관들이 상호 공조를 통해 실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비상 재난 상황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한 익산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